

하 나 님 나 라

제 37호 2011년 9월 27일

서부 아프리카 시에라레온의 선교사 윤장욱 목사 가정이 모든 성도님께 드리는 기도편지

Rev. Jang Wook Yoon. P. O. Box 968 Free Town, Sierra Leone. West Africa

Tel : 232-76-672432 H. P : 232-33-672432 E-mail : sl-woon @ hanmail.net

밤낮으로 뿌리던 우기철의 빗줄기가 가늘어지고, 이제는 낮에는 화창한 날씨를 볼 수 있고, 밤에는 장대비가 내리는 우기철 끝날 즈음의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낮의 일교차가 심하기에 목과 코감기가 유행이며, 많은 비의 수량으로 수도물이 정제되지 않은 채 공급되기에 타이푸드와 콜레라의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높은 하늘과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로 달려가고 있겠죠?

지난 현지 여름방학 동안 바쁘게 움직였고,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였기에 여기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후원교회와 성도님들의 선교지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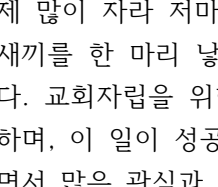
* 마마마 교회, 사택 과 교인 화장실 수리 및 페인트 칠...



지난여름 고신 세계 선교대회 참석 시 여러 후원교회를 방문하여 저의 사역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때 저희 가정과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와 사랑을 나누어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때 그 사랑들을 모아서 마마마교회와 사택 그리고 화장실을 재 보수 하였으며, 교회문과 집, 화장실의 각종 나무문의 잠금 장치를 다 바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택 내, 외부 전체를 새롭게 페인트칠을 하였고, 후에는 교회 벽면에 교회 명을 새겼습니다. 전도팀원들이 매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그리고 공휴일을 이용하여 3주 동안 페인트칠 작업을 하였고, 벽면 교회 명은 간판을 쓰는 사람을 불러서 새겼습니다. 시골로 가는 도로가 하나뿐이기에 고속도로라 불리는 도로가에 교회가 있어 파란색 위에 새겨진 교회이름이 오고가는 차안에서도 다 볼 수 있어 교회를 알리는데 많은 기여를 할 뿐 아니라 새롭게 단장을 한 교회를 본 성도들이 너무 기뻐하며 이제 새로운 맘으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누어 주신 기도와 사랑으로 된 것이기에 더 감사를 드립니다.



* 숨부야 교회농장 내에 집 건축과 농장사역에 대하여...



시골지역 교회 개척을 하면서 당면한 문제가 재정적으로 자립이 안 된다 것입니다. 특히 가난한 이 선교지는 교인이 50-70명 모여도 주일 헌금이 \$ 6 정도입니다. 그러기에 시골로 목회자가 오지 않고, 엄청난 아랍세계의 자금을 등에 업은 모슬렘은 시골 곳곳에 사원을 지으면서 포교 활동을 하기에 기독교인은 줄고, 모슬렘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교회자립을 위해 시작된 교회농장은 12에이커의 땅에 숨부야 초창기 교인인 아부가족이 섬기며, 지난여름의 사랑의 손길이 이번에 농장 안에 아부가족이 거할 수 있는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집에 속해 있는 가축집의 문을 다는 작업만 남겨둔 채 완성 되었습니다. 6년 전에 심었던 팜 나무는 이제 많이 자라 저마다 아직은 작지만 열매를 맺기 시작하였고, 두 마리로 시작된 염소는 지난주에 새끼를 한 마리 낳아 이제 10마리가 되었고, 새로 분양받은 두 마리의 돼지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교회자립을 위한 교회농장의 접목은 저희가 선교현지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도팀들이 말하며, 이 일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시골 교회에 널리 보급하여 시골교회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 드디어 님바 코너 지역에 주일모임을...**



작년에 이 지역으로부터 교회를 시작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에 기도와 준비로 3월에 시작하려던 주일 모임을 교회 땅 얻는 문제와 서류 작업이 지연되어 오다가 드디어 7월 둘째 주일에(7월10일) 나무와 비닐과 마트로 지은 임시 건물에서 주일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티미니 종족 땅에 님바 종족으로만 구성되어진 마을이고 지난 두 번의 교회가 들어왔지만 거리와 교통 형편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목회자들이 제대로 오지 못하여 교회가 문을 닫는 아픔을 겪었기에 상처가 많지만 기독교적 성향이기에 첫날부터 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날 12시, 2시반의 두 번 예배를 드리고 가기에 5시 반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남자들은 일하는 시간이기 에 거의 대부분의 여 성도들이 나아옵니다. 애들과 어른들이 같이 예배 드리기 때문에 교회가 적어 더 넓히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주일 모임이 잘 자라온 마을 사람들이 다 교회로 나아오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주일 모임 처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주신 무명의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 교사 강습회부터 여름성경학교까지...**



5월부터 온 교회에 선포하여 7월에 있을 여름성경학교와 중, 고등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이곳에 와 성경학교와 중, 고등부 수련회를 봉사한 송미나 자매로부터 여름성경학교 교재를 받아서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3일로 교사 강습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여름 프로그램에 돌입하였습니다. 12명의 교사와 저희 부부가 참석하였고, 미리 나누어준 교재를 외우고 나름대로 소화시켜 강습회 기간 중에는 교사들이 한 과씩 성경공부를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훈련을 하였고,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보완해주면서 실제적이고 유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녁에는 교사들이 모여서 성경학교를 위해 뜨거운 기도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숨부야 교회를 시작으로 성경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Soul Survival"이라는 제목으로 다섯 가지 성경본문을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으며, 성경공부 다음엔 본문 내용과 같은 성경 만화를 보여줌으로써 좀 더 쉽게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침8시30분에 시작하여 오후3시까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교회에서 빵과 음료를 준비하여 영, 육간에 필요를 공급하였습니다. 7월21일부터 23일까지 마마마교회에서 하였고, 주일날에는 각각의 교회에서 어린이들이 성경학교를 통해 배웠던 찬양과 율동, 성경구절 암송, 성경이야기, 연극 등을 준비하여 성경학교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7월29일과 30일은 님바 코너 교회에서 처음으로 성경학교를 하였습니다. 1마일 이상 떨어진 아래, 윗동네 어린이들까지 모여서 교회가 팍 차서 밖에 서서 프로그램에 참석하였습니다. 8월1일부터 3일까지는 마폴로 교회를 마지막으로 지나긴 여름 행사를 마쳤습니다. 매년 성경학교 기간은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시기입니다. 그러기에 비가 오면 많은 어린이들이 못나오기에 기도 제목이었는데 올해에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성경학교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거나 비가 오더라도 교회에 어린이들이 오고나면 비가 세차게 오다가 집에 돌아갈 때쯤이면 비가 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간에 점심 빵과 음료를 받고서 집으로 도망치려고 해도 세찬 빗줄기에 할 수 없이 교회에 남아서 나머지 시간에 참석을 해야만 했습니다. 숨부야 교회는 250여명, 마마마 교회는 430여명, 님바 코너는 100여명, 마폴로 교회는 150여명이 매일 나와서 복음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긴 성경학교를 마친 후에 모든 교사들과 저희 부부도 완전히 탈진이 되었지만 그래도 어린 영혼들이 말씀으로 훈련되고,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좋은 교재와 성경 만화를 미국에서 보내준 송미나 자매와 온 몸으로 헌신한 12명의 교사들 그리고 기도해 주신 기도 후원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S. F. C. 수련회...**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마폴로 교회에서 워터루 지역의 장로교회와 우리 네 교회가 연합으로 "Your Life in Christ" 라는 제목으로 S. F. C. 중, 고등부 연합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마폴로 교회 내에 있는 자동펌프가 고장이 나서 물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기에 100여명을 예상했던 수련회를 각 교회에서 차량 지원 없이 자원하는 사람이 스스로 찾아와서 수련회에 참석하게 하니 57명의 인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매일 25리터짜리 물통 약 30여개를 공급해야 식사준비와 여자들의 샤워가 되며 남자들은 밤에 물가로 가서 씻었습니다. 마침 다른 분을 통하여 이곳을 방문한 미국의 한국 은퇴목사님이 연결되면서 저녁마다 힘찬 복음의 말씀으로 학생들에게 도전을 주었고, 다섯 번의 성경공부 시간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강령을 외우며, 매 식사 때마다 시편 100편을 한 구절씩 외움으로써 시편100편을 모두 암송하게 되었고, 아침엔 조별 말씀 묵상과 나눔, 저녁엔 조별 기도회를 통하여 서로를 알아가며, 그리스도안에서 좋은 믿음의 교제를 가졌습니다. 이들이 학교로 나아가 좋은 믿음의 군사로 학원 복음화에 크게 쓰임 받기를 기대해 봅니다.

*** 이산가족이 되면서...**

14년 전 처음 시에라레온으로 올 때 막내 승헌이는 임신 5개월 이었는데 지금은 자라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위해서 형이 공부하는 세네갈의 선교사 자녀 기숙학교로 8월부터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의 열악한 교육환경이 더 이상 이곳에서 대학을 가기위한 교육이 되지 않기에 부득불 세네갈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거의 모든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며 한집에서 서로 부딪치며 자라다가 큰 딸 헤빈이는 미국에서 대학을, 아들 수헌이와 승헌이는 세네갈 선교사 자녀 학교로 이젠 하나씩 집을 떠나가니 자녀들이 있을 때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던 집이 이제는 텅 비어서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자녀들을 학교로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일에 한 사람이 매달려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우리 부부가 더 적극적으로 교회 사역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밤늦게 돌아오는 길이 안전치 않기에 이제는 마폴로에서 잠을 자고 낮 시간에는 솜부야와 마폴로 교인들을 심방을 할 것이며, 그동안 계획만 세워 놓았던 마폴로 교회의 도서관과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떠나 그 허전함을 그동안 계획을 세웠던 사역들로 채우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 기 도 제 목**

1. 시에라레온을 위해 -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사회를 변화 시킬 수 있도록.
경제성장이 일어나서 성도들의 삶이 윤택해 지도록
2. 솜부야, 마폴로 교회를 위해 -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하도록.
매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음으로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좋은 현지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목, 금요일에 있는 기도회가 성령 충만한 시간들이 되도록.
3. 마마마 교회를 위해 - 사역하는 에드워드 전도사가 영적으로 충만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도들이 열심을 가지고 전도에 힘쓰며, 금요 기도회가 뜨거워지며 성령 충만 하도록.
에드워드 전도사와 교회가 좋은 팀웍을 이루어서 교회가 영적, 질적으로 성장하도록.
4. 림바코너를 위해 - 매 주일 모임에 온 마을주민이 다 나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도록.
건기철이 되면 교회를 지을 수 있게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도록.
5. 어린이 사역을 위해 - 11명의 전도팀이 하나가 되어 어린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매주 주일학교를 통하여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져서 후에 이 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주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6. 저희 가정을 위해 - 이곳 영혼들을 향한 첫사랑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생활에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더 깊어지도록.

재정적으로 많이 부족한데, 후원교회가 늘어나며, 후원금이 채워지도록,

저희 부부가 사역에 지치지 아니하고 늘 영,육간에 새 힘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미국에서 공부하는 헤빈이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안전과 필요한 학비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지도록, 세네갈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공부하는 수현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앙

이 더 깊어지고, 이번에 대학 진학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막내 승현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원대한 비전을 가지며, 세네갈 선교사 기숙학교

에 잘 적응하며 학업을 혼자서 잘 따라 갈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며 한국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잊지 않고 물질로 후원 해 주시는 후원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지를 향한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이 선교지 시에라레온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한시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늘 기도와 후원의 사랑의 빛을 선교지에서 이름 없이 섬김으로 갹기를 원하는 윤장욱 선교사 가정 드림.